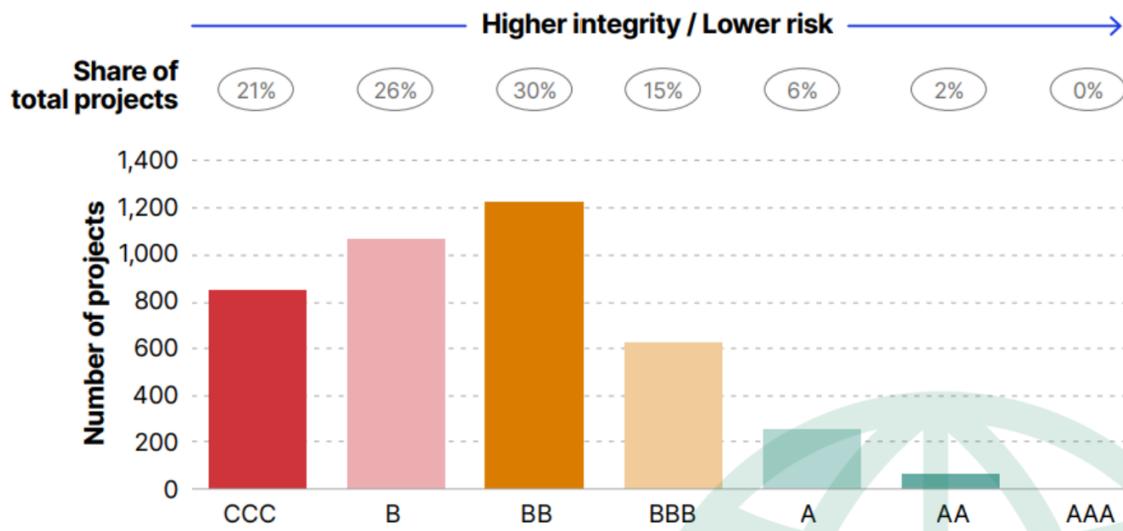




### 산업 동향

Exhibit 18: Number of registered projects by MSCI Carbon Project R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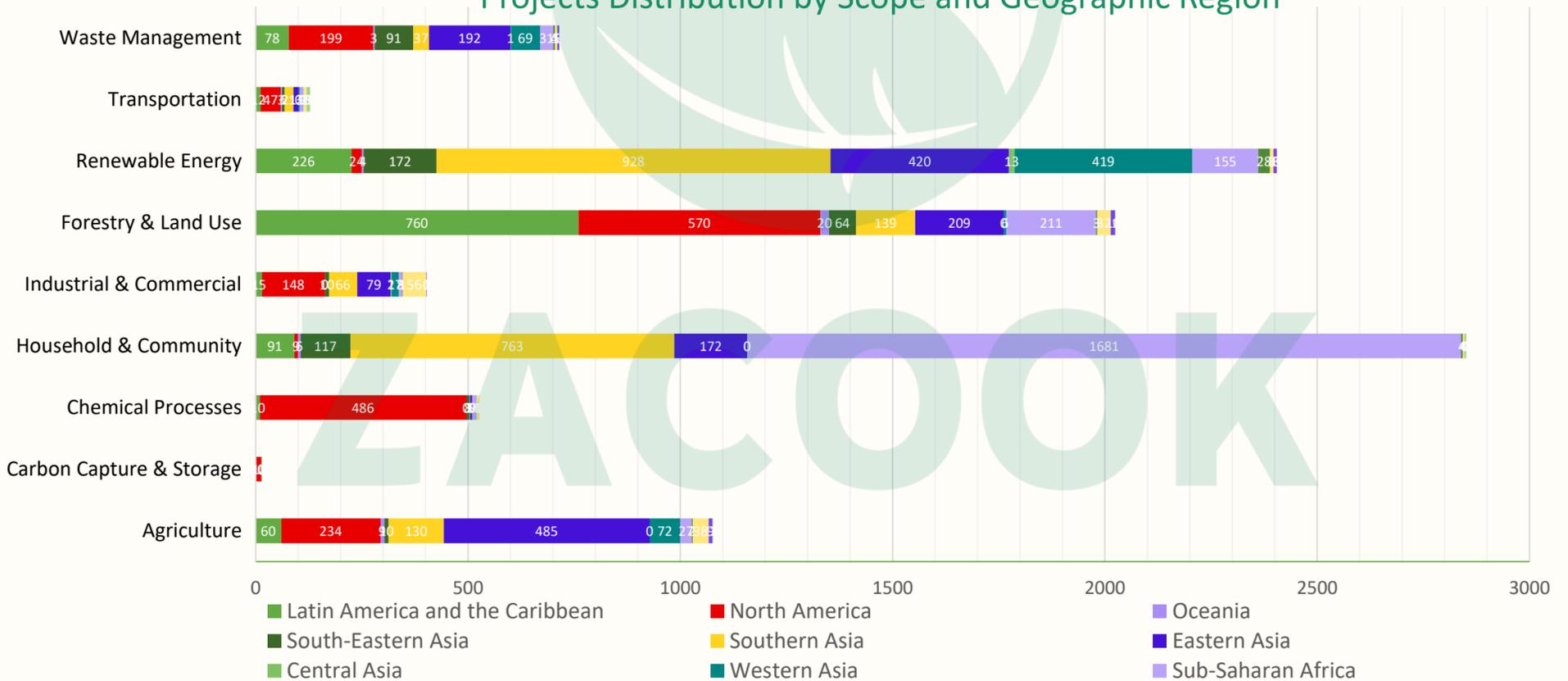
Data as of September 2024. Source: MSCI Carbon Markets

<https://www.msci.com/research-and-insights/2025-sustainability-climate-trends-to-watch>

### 탄소시장, 저품질 비중 감소...

고등급 크레딧 사용 늘어 MSCI 분석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사용된 자발적 탄소 크레딧 중 절반 가까이가 B등급 이하였으나, 최근 2년간 CCC 등급 사용은 감소하고 A~AA 등급 사용은 두 배로 증가했다. 시장이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 Projects Distribution by Scope and Geographic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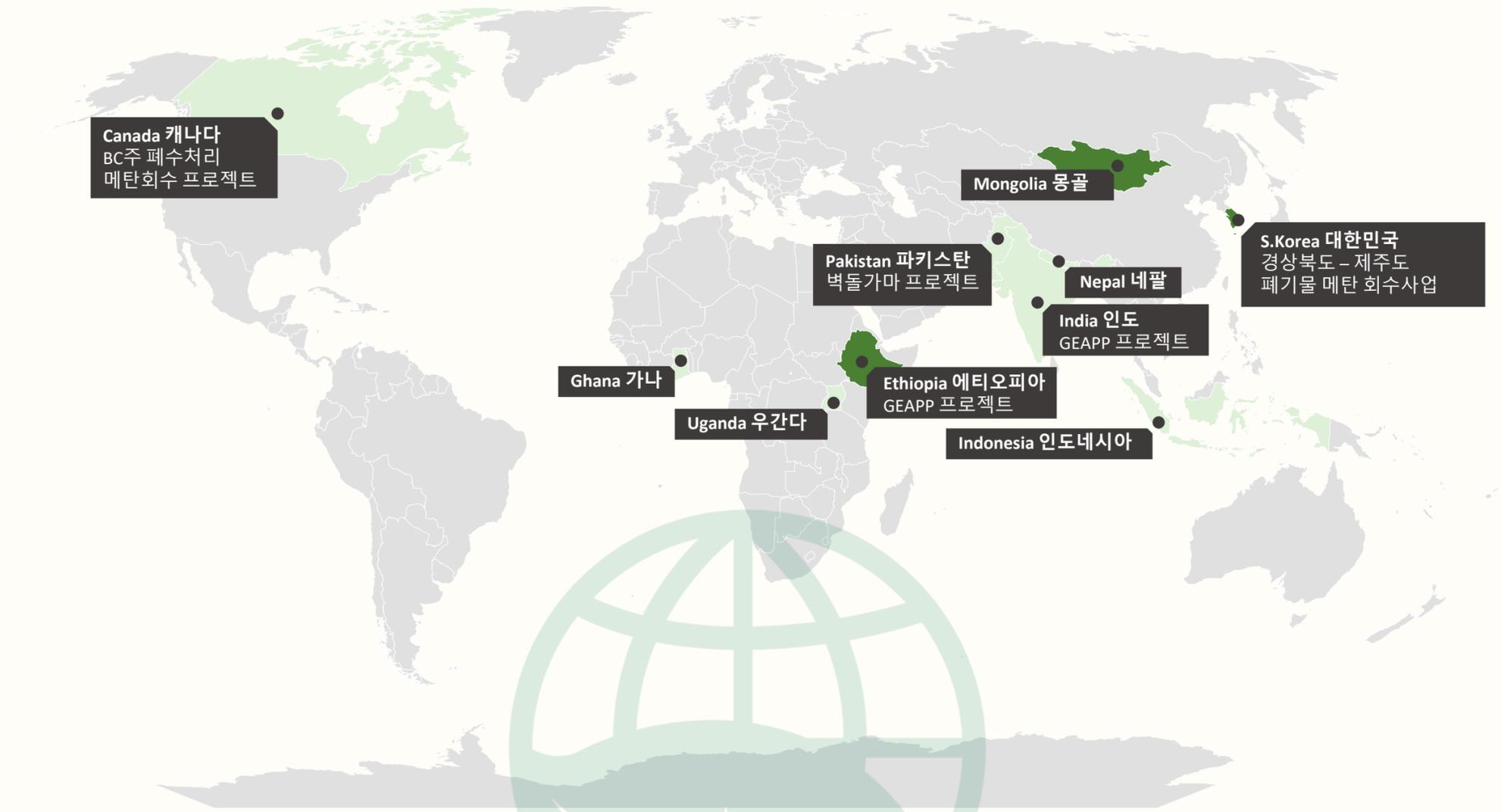
Barbara K Haya, Tyler Bernard, Aline Abayo, Xinyun Rong, Ivy S. So, Michah Elias. (2025). Voluntary Registry Offsets Database v2025-02, 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trieved from: <https://jspp.berkeley.edu/faculty-and-impact/centers/ccpp/projects/berkeley-carbon-trading-project/offsets-database>.

- 가계 및 커뮤니티 부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압도적 1위
- 산림 및 토지 이용·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 세계적으로 활발
- 산업 및 상업 부문, 동아시아에 집중
- 화학 공정 프로젝트, 북미 지역에 편중
- 농업 프로젝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서 두각
- 운송·탄소포집 저장 부문, 전 세계적으로 참여 저조

### 탄소배출권 시세

EU ETS	UK ETS	KOR ETS	CA(USA) ETS	CAN ETS	CHN ETS	NZL ETS
€66.97 (-8.26%)	£47.40 (+31.74%)	₩8,700 (-6.45%)	\$29.27 (-8.27%)	\$95 (fixed 2025)	¥76.90 (-21.30%)	\$51.50 (-16.07%)

# 자국 사업개발 현황



## 자국 업데이트

### GEAPP, 한국 방문 통해 한국과 민간 파트너십 협의



- 엄우종 GEAPP 대표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하여 Mission 300 추진, 민간 파트너십 확대, BESS 전략, 국제 탄소시장 연계(ITMO, VCM) 등을 중심으로 자국과 협의를 진행함
- GEAPP는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의 탈탄소 기반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프로젝트에서 한국 민간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GEAPP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삼아, 민간 기술·금융 역량을 통합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상 중임

- GEAPP는 아프리카 최대 커피 수출국인 에티오피아의 주요 생산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농가의 전력 접근성을 높이고 커피의 건조·가공·저장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국은 해당 사업에서 프로젝트 설계 및 탄소 감축량 인증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를 모색하고 있음
- 특히 LS그룹은 기술 및 인프라 부문 파트너로서 GEAPP와의 협력사업에 관심이 많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음

자국 업데이트

경상북도의 몽골 재생에너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사업제안서 제출

-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함
- 이 사업으로 몽골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국제 탄소거래 메커니즘(파리협정 제6.2조)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



한-몽 미래전략포럼

- 2025년 8월 19-21일 개최 예정인 제 4차 한-몽 미래전략포럼에 자국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를 준비함

관련뉴스

유럽연합, 새로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배출권 도입 검토 중

마이크로소프트는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항에 건설될 AtmosClear의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시설은 15년간 약 67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할 예정이며, 사탕수수 부산물과 산림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배출된 CO<sub>2</sub>를 지하에 저장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목표와 일치하며, 총 8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성패는 톤당 \$85의 45Q 세액공제 유지 여부 등 연방 정책 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by Valerie Volcovič - Reuters [원문 보기](#)

토탈에너지스 · 셸 일부 철수 속 네덜란드, 탄소 저장 프로젝트 지원



네덜란드 정부는 최대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인 '아라미스'에 6억 3,9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토탈에너지스와 셸이 파이프라인 인프라 투자에서 일부 철수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두 기업은 저장소 개발과 관련 서비스에는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라미스 프로젝트는 북해에 연간 2,200만 톤의 CO<sub>2</sub>를 저장해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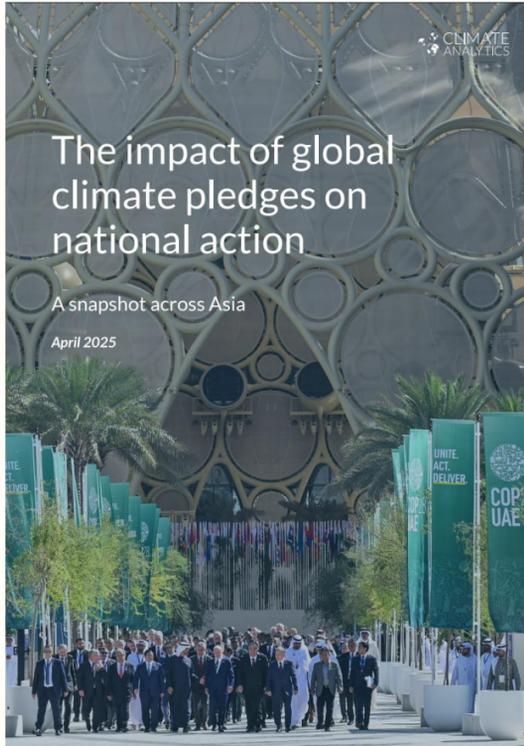
by Alban Kacher - Reuters [원문 보기](#)

관련 뉴스

AI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핵심 광물 쟁탈전 심화

AI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이 모두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서면서 자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배터리 기반 청정에너지 기술 확산이 맞물리면서, 이들 광물의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채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y Saptakee S – CarbonCredits.com [원문 보기](#)



글로벌 기후 공약이 각국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지역 스냅샷

이 새로운 보고서는 일본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기후 공약 이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석탄 의존, 에너지 효율성 문제, 화석연료 사용 증가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심 찬 목표를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강력한 정책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석탄 감축 계획이 부재한 반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 비교적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5°C 경로에 부합하고 '석탄에서 청정 전력으로(Coal to Clean Power)' 선언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석탄 감축 계획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ZACOOK